

강아지를 위한 실시간 염증 마커



CRP (C-Reactive Protein)

CRP
28mg/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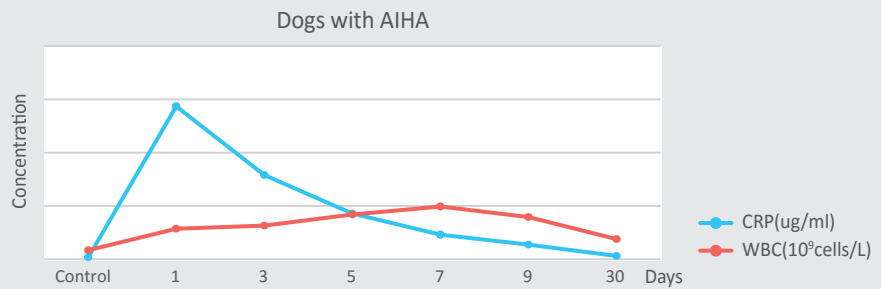


CRP 언제 사용할까요?

- 초기 진단
- 염증, 감염 심각도 판단
- 치료 효능 평가 / 약물 효능 평가
- 수술 후 회복 / 합병증 모니터링
- 노령견 건강 검진

CRP의 장점

CRP는 WBC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질병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

J Vet Intern Med 2009;23:585-591

CRP가 증가하는 질병

- 췌장염
- 전신적 세균 감염
- 자궁축농증
- 파보바이러스 감염
- 간염
- 신부전
- 관절염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
-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
- 기관지 폐렴
- 모낭충감염증
- 렙토스피라감염
- 레슈매니아증

제품 정보



검사시간
5 분



측정범위
10~200mg/L



검체
혈청, 혈장 (헤파린)

CRP의 9가지 임상적 적용 방법 (normal value: < 20 mg/l)



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 및 천공 진단

- 소화기 천공이나 내부 출혈이 있으나 겉으로는 눈에 띄는 임상증상이 없는 개에서 CRP로 숨겨진 증상 진단 할 수 있습니다.



단 한번의 검사보다는 연속적인 검사

- 단 한번의 CRP 검사보다는 CRP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면 질환의 진행 또는 회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



초기 진단

- 고열, 식욕부진, 침울 등의 비특이적 임상증상 소견을 보이며 CBC, chemistry가 정상인 경우 CRP가 증가했다면?
→ 더욱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→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

술 후 회복 / 합병증 평가

- 술 후 고열, 식욕부진, 침울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개는 백혈구 수치와 관계없이 CRP를 측정하여 합병증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퇴원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→ 특히, CRP는 술 후 7일 정도에는 정상범위로 돌아오므로 5~6일째에도 CRP가 높게 유지된다면 입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→ 수술 전후로 CRP를 매일 검사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→ CRP는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강아지의 상태를 반영해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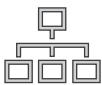
개에서의 심각한 전신적 질환 모니터링

- 급성 췌장염, 자궁 축농증, 심각한 전신 감염,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 등에 의해 CRP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
→ 공격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위해 보호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.
→ 입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

적절한 항생제 선택

-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며 동시에 CRP를 측정함으로써 치료적 진단방법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→ 항생제를 투여한 후에도 SAA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로 바꾸고 입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


노령견 건강 진단 프로그램에 추가

- CRP는 노령견 건강 검진 항목으로 추가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, 증가된 CRP를 보이는 개의 경우 정밀 검사를 위해 보호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.



감염성 질환의 치료와 모니터링

-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, 바베시아증, 레슈매니아증, 모낭충 감염증, 렘토스피라 감염증, 심각한 전신적 대장균 감염증 등은 우선 래피드 테스트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· 그 이후, 확진된 병명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함과 동시에 CRP를 측정함으로써 회복과 치료 반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

신부전 심각도 평가

- CRP는 신부전 심각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CRP 수치에 따라 stage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질환이 더욱더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.